

불안한 지구촌 스포츠 축제 '30일 앞으로'

코로나19 여파로 124년 만에 올림픽 시계 달라져 33개 종목·339개 세부 경기... 한국 종합 10위 목표

코로나19 여파로 1년 미뤄진 2020 도쿄하계올림픽의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32번째 하계올림픽은 최초로 '홀수해에 열리는 대회'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1896년 근대 올림픽 태동 이래 124년 만에 질병으로 연기된 최초의 대회라 올림픽 시계마저 바뀌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나라별로 크게 다른 백신 보급·접종률 탓에 인류의 이동은 2년째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 국민과 기업마저 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되려 없는 올림픽 강행'

을 사실상 필사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목표 달성 목전에 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최근 영국에서 끝난 G7(주요 7개국) 정상 회의에서 각 나라 정상들의 올림픽 개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17일엔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던 긴급 사태도 해제했다.

7월 23일 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선수들을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선수·지도자를 최악에는 국외로 추방하겠다고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긴급 사태 해제로 '감염 폭발'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다.

또 1만명이 넘는 인원을 선수촌과 경기장이라는 '버블'에 수용해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겠다는 도쿄조직위의 구상과 방역 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도 적지 않다.

도쿄올림픽에선 33개 정식 종목, 339개 세부 경기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한다.

18일까지 25개 종목, 92개 세부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 196명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종목별 세계 예선은 6월 29일 끝나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선수 최종 엔트리 마감은 7월 5일이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7개 이상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한다. 대회 초반에 몰린 '효자'

종목' 양궁과 태권도가 한국의 메달 레이스를 주도한다. 양궁은 7월 23~31일, 태권도는 7월 24~27일 열린다.

미국 스포츠메이커 회사인 그레이스 노트가 4월에 발표한 도쿄올림픽 순위예상을 보면,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를 따내 종합 순위 10위에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금메달 43개 등 114개의 메달을 획득해 1위를, 중국이 금메달 38개로 2위를 달릴 것으로 그레이스 노트는 예측했다. 개최국 일본은 목표인 30개를 뛰어넘어 금메달 34개를 수집할 것으로 관측됐다.

IOC의 지속적인 남녀 성비 균형 정책에 따라 도쿄올림픽에서 여성 선수의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4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녀 혼성 경기의 수는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보다 9개 증가한 18개다.



20일(한국시간) 20일 만에 시즌 4호 홈런을 터트린 김하성. 연합뉴스

빅리거 김하성 벼락같은 투런포 작렬

신시네티언 시즌 4호 홈런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팀 동료 부상으로 잡은 출전 기회에서 승부를 가르는 벼락같은 결승 홈런포를 터뜨렸다.

김하성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네티 레즈와 홈 경기에서 5-5로 맞선 8회말 좌월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디에이고는 7-5로 승리했고, 김하성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김하성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5회초 대수비로 교체 출전했다. 그는 6회 첫 타석에서 2루 땅볼을 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김하성은 올 시즌 타율은 0.209에서 0.213(155타수 33안타)으로 상승했다. 타점은 20개로 늘었다.

2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상대 팀 우완 볼펜 히스 험브리를 상대로 볼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가운데 볼린 시속 143km 슬라이더를 건어 올렸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수 있는 시원시원한 스윙이었다.

김하성이 홈런을 친 건 지난달 31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원정 경기 이후 20일 만이다.

'김하성 타임'은 9회초 병살 수비로 이어졌다. 김하성은 1사 1루에서 신시네티 레즈의 타구를 잡아 2루를 밟고 1루로 송구해 아웃 처리하면서 직접 경기를 끝냈다.

김하성의 올 시즌 타율은 0.209에서 0.213(155타수 33안타)으로 상승했다. 타점은 20개로 늘었다.

생존율 65%... 최종 옥석 가리기

김학범호 도쿄행 생존 경쟁 와일드카드 황의조 등 유력

23명의 김학범호 2차 소집훈련 대상자들이 15장뿐인 도쿄행 티켓을 쫓기 위한 '생존율 65%'의 마지막 생존 경쟁에 나선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22일부터 파주NFC에서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2차 소집훈련을 치른다. 2차 소집 훈련의 목적은 최종 엔트리 확정이다.

도쿄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태극전사는 18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와일드카드'로 불리는 만 24세 초과인 '오버 에이지드' 선수로 채워질 예정이다. 결국 24세 이하 선수는 15명만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다.

김학범 감독은 지난 5월 31일~6월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된 1차 소집 훈련에 합류한 30명의 선수 가운데 21명의 선수에게 2차 소집훈련 참가 자격을 줬다. 여기에 김대원(강원)과 송민규(포항)를 합쳐 23명으로 2차 소집 훈련 명단을 꾸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김학범호 우승에 힘을 보탤던 이승우(신트트라위던)와 유럽 생활을 마무리하고 K리그1 전북 현대 모터스

한 백승호를 비롯해 핵심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손꼽힌 조규성과 오세훈(이상 김천)까지 2차 소집훈련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 2차 소집훈련에 탈락한 선수는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한다.

김학범 감독이 뽑은 2차 소집훈련 대상자들의 자격은 자신의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은 기본으로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멀티플레이 능력이다.

김 감독은 대표팀을 이끌면서 체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뽑았다. 이미 1차 소집훈련과 가나 평가전을 통해 김 감독의 선수선발 기준을 잘 파악한 23명의 2차 소집훈련 대상자들은 15명에게만 주어질 도쿄 올림픽 탑승권을 차지하기 위한 '생존율 65%'의 치열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김 감독은 3장의 '와일드카드'로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수비수 1명씩을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트라이커 황의조(29·보르도)는 사실상 김학범 감독의 '원픽'으로 내정됐다.

중원에서는 팀 전체를 조율해 줄 경험 있는 미드필더가 뽑힐 전망이다. 중원과 측면을 모두 볼 수 있는 권창훈(27·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수비수는 김민재(25·베이징 궈안)가 유력하다.



치열한 공중볼 다툼. 20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울산 현대와 성남 FC 경기에서 울산 김기희와 성남 부수가 공중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경기는 치열한 접전 끝에 2-2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연합뉴스

'대세' 박민지, 메이저도 품었다

KLPGA 한국여자오픈 제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세' 박민지(23)가 여자 골프 최고 권위의 내셔널 타이틀인 한국여자오픈 우승 트로피까지 품에 안았다.

박민지는 20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박민지는 이번 시즌 들어 9개 대회에서 무려 5번을 수확하는 초강세를 이어갔다. 이번 우승으로 박민지는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정상까지 정복하는 기쁨을 누렸다.

박민지는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아 시즌 상금을 무려 9억4480만원으로

불렀고, KLPGA투어 시즌 최다 상금 기록 경신도 바라보게 됐다.

박민지는 박현경과 18홀까지 슛 막히는 우승 경쟁을 벌였다. 박현경이 먼저 주도권을 잡았다. 5번 홀(파4)에 박현경은 3m 버디 퍼트를 떨구면서 2타차 선두로 역전했다.

박민지는 6~8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쓸어 담자 선두를 되찾아왔지만 레인보우힐스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박민지가 세 번째 샷이 네 번 만에 그린에 올라 2m 파퍼트를 놓쳤다. 박민지는 18번 홀(파4)에서 승부수를 띄웠다. 158야드를 남기고 핀을 곧바로 겨냥해 때린 두 번째 샷을 핀 앞 1m 거리에 떨구어 승부를 갈랐다.

티샷을 왼쪽으로 당겨친 박현경은 세 번 만에 그린에 올라와 2주 연속 박민지에 이어 준우승했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미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KBS 아침 뉴스타임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KBS 아침 뉴스타임 9:15 KBS 아침 뉴스타임 10:00 속이든 풀겉(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멀리서 보면 푸른 봄(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겐 해피플러스 8:50 발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안싸우면 다행이야(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모르파티 9:10 좋은 아침 15:15 콜라세 e 10:30 삼만나는 오늘 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 17:20 세미와 매직큐브 19:05 드라마 길들이기 19:35 자이언트 펭TV	7:30 두더지굴 8:00 팅동방 유치원 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반개맨 9:40 우리집 유치원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14:10 EBS 다크프라임 15:15 콜라세 e 16:30 동동방 유치원 17:00 EBS 뉴스 19:05 드라마 길들이기 19:3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킹 공룡기획 문화스캐저 13: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보물섬 15:20 콘텐츠 안테나(재) 16:00 시사간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멀리서 보면 푸른 봄(재) 13:20 트레킹노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연중 라이브(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뽕글(재)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크(재) 16:50 TV는 사랑을 싣고(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체널2 12:50 뽕글 전국친구 스페셜 13: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3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5:55 기본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좌충우돌 민족 유력기 캠핑 인 코리아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뽕글2 나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광리! NOW 제주 스페셜 16:30 맛있는 제주 만들기 17:00 SBS 유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네오세모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맞춤뉴스 12:05 천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캐저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태의 뉴스쇼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길의 가느다란 아현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속이든 풀겉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리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박원숙의 같이 살아요 3 21:30 멀리서 보면 푸른 봄 22:10 멀리서 보면 푸른 봄 22:40 개는 훌륭하다 1부 23:35 개는 훌륭하다 2부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발이 되어라 19:40 MBC 뉴스데스크 1부 20:30 MBC 뉴스데스크 2부 21:00 안싸우면 다행이야 1부 21:55 안싸우면 다행이야 2부 22:30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스페셜 나는 내운명 1부 23:50 동상이몽2 나는 내운명 2부	18:50 생방송 투데이 1부 19:20 생방송 투데이 2부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리셋소년단 1부 22:40 리셋소년단 2부 23:10 동상이몽2 나는 내운명 1부 23:50 동상이몽2 나는 내운명 2부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봐서 권광중국어 8:00 석학강좌 9:00 KCTV 뉴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KCTV 시청자세상 13:10 TV 다스레세상 14:00 석학강좌 15:20 마음의 고향 서울강터 17:00 KCTV 뉴스 20:00 TV 다스레세상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21일

김종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동 교수(010-5233-6136)

36년 예전과 같지 않다.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날이다. 48년 봄은 분주하고 이동, 변동 변화가 찾아온다. 60년 내주변의 사람과 자주 비교하는 일이 생기니 소신을 가질 것. 72년 누구에게나 관대하고 온 날이다. 칭찬을 많이 할 것. 84년 이성인이 있고 취업 운·시험운이 있는 날.

42년 불심 많을수가 있으니 지갑, 물건을 잘 챙길 것. 54년 돈에 이익이 있기도 하고 가야할 곳도 생긴다. 66년 새로운 투자 전환을 하고 싶어하며 정보를 많이 알리고 한다. 78년 새로운 이성교제 또는 사회 활동에 참여 하려고 한다. 90년 갈등과 번민이 많다. 가정에선 금전적 문제로 대화 단절.

37년 직업에서 고민이 생기고 갈 곳이 많아진다. 49년 유업·미용·파부·의류업종 이익이 증가하고 매매 등으로 이익이 생기기도 한다. 61년 소망 또는 이사 등으로 문의하고 금전적 지출도 생긴다. 73년 개인 사업, 창업 가능하다. 85년 함께 일을 하게 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43년 마음이 답답하면 산, 바다로 나가서 휴식을 가져라. 취미생활 권장. 55년 중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작하는 일은 보류하는게 낫다. 67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니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다. 79년 동쪽에서 행운이 오고 붉은색이 행운색. 91년 건강이 최고의 선물. 운동계획 수립, 실천 생활화.

38년 인간관계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체제술이 필요. 50년 모임이나 여행이 기다리고 친목도 필요. 62년 하는 일에 호전되나 인력이 다소 부족하니 대인 관계가 필요. 74년 몸이 휴식을 취하고 싶어도 집안에서 연락이 와서 나를 찾는다. 86년 한가지 직업에 충실해야 하나 변화를 주려 한다.

44년 전문직, 자영업에 기쁨, 음식, 예식업, 사주나 업은 손바 왕래가 많다. 56년 주관이세 시간활용을 잘하면 이익이 크다. 68년 신규 창업 시 함께 대책을 강구해 공중·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80년 신상이 예민하며 따지려 하는 마음이 강하다. 92년 기쁜 소식이 오고, 인심 쓸 일이 생긴다.

39년 의욕이 강하나 너무 열정적인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 51년 외출이나 만남, 모임이 기다리고 있다. 63년 무엇이드 하면 된다는 욕망이 강하다. 매매·분서운 원만. 75년 지원 또는 도와줄 일이 생기고 외출하는 일이 생긴다. 87년 일이 지연되고 만남의 성과가 미약하다.

45년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니 외부 활동이 권장된다. 57년 특별한 이번 친화력으로 인정 받는다. 69년 업무나 맡은 임무를 대충하면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니 마무리를 잘하라. 81년 직업으로 갈등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라. 미혼은 애정결핍을 느낀다. 93년 재도를 벗어난 행동을 취하면 구설이 된다.

40년 정신적 스트레스가 올 수 있으니 마음을 넓게 갖는 여유 필요. 52년 함께 모여 기쁨이나 정보를 얻게 된다. 술은 자제하고 유머가 필요한 날. 64년 신발·패션·그릇분야·이벤트업은 생기가 돈다. 76년 아랫사람과 유대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 필요. 88년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라.

46년 몸을 분주히 움직이거나 멀리 출타할 일이 생긴다. 58년 약속에 차질이 생기거나 취소된다. 70년 나의 지혜로움이 상대에게 기쁨과 스트레스를 배양시켜 줄 수도 있다. 82년 생각이 일을 하다보면 손실만 많아지니 철저한 계획이 필요. 94년 언행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니 큰 소리는 자제.

41년 자녀의 일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변화를 주고 싶어한다. 53년 새로운 마음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라. 아랫 사람의 공이 따른다. 65년 스포츠,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식당에 가게 된다. 77년 취업 또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쁜 소식이 오기도. 89년 친구·마라 식당에 가서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47년 어떤 일든 마음을 먹고 추진한다면 미루지 말고 추진하라. 59년 직업 변동이나 신규사업을 하려고 움직인다. 71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 설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83년 서두르는 것보다 안정 속 한 곳에 집중해 투자하라. 95년 외출이나 방문 시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아야 한다.